

진짜 경영마인드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검입)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krhee@hotmail.com

노무현 전대통령은 임기 동안 한·러 정상회담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그는 한국 측 기업인들과의 만찬 행사에서 "밖에 나와 보니 나라경제가 기업 따로, 정부 따로 가 아니고 함께 손잡고 뛰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여러 과제가 있지만 먹고 사는 게 첫째로 경제는 결국 기업이 한다. 나와 보니 더 실감 난다"고 말하고 공항 도로 진입로 곳곳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광고판을 상기시키며 "광고판을 보니 우리의 얼굴이다 싶어 한없이 흐뭇했다"고 하며, 특히 "역시 외국에 나와 보니 '기업이 바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한국기업의 투자"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종용했다.

'기업이 바로 나라'

김대중 전대통령은 새해 인사회에서 "정치인은 서생(書生)적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적 현실감각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언제 물건을 사고팔지를 생각하는 상인의 현실적 감각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정치인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정치지도자들의 경영 마인드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국경을 넘어 자본과 상품과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대가 된지 오래다. 바야흐로 무한경제전쟁시대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국가는 주식회사 유럽, 주식회사 미국이 됐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최대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 우뚝 섰다. 마오쩌둥의 '이념'에서 덩샤오핑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기만 하면 되는 세상'으로 변했다. '귀신을 만나면 귀신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된다'는 중국속담처럼 중국인들의 적응력은 놀라울 뿐이다. 이제 '중국식 자본주의'를 행해 질주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지도자는 상해경제를 성공시킨 장쩌민을 거쳐 시진핑으로 승계됐다. 말하자면 통치자에서 국

가경영자로 발맞춰가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경영마인드

잠자고 있던 거대한 코끼리인 인도는 경제적으로 급속성장했다. 미국실리콘밸리에서 훈련된 인도의 인재들이 그들의 모국을 IT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떠올리면서 중국과 '적과의 동침'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말이 생각난다. "중국(China)과 인도(India), 즉 친디아(Chindia)의 부흥과 그에 대한 세계의 반응이 21세기를 정의할 것이다."

골드만 삭스가 '21세기는 브릭스(BRICs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의 세기'라고 예언한 것에 대한 응수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경제전쟁의 극렬함을 보여주는 말들이었다. 국가도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세계화 시대다.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낙후한 정치와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국가도 국민을 '고객처럼 왕처럼 모시는'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국민이 곧 '세금을 내는 상전(Tax-payer)'이 아닌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주창한 링컨의 교훈처럼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경영마인드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국가경영마인드는 실물경제와 조직경영의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다. 학자들은 실물경제경험이 없고 조직운영 노하우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기 쉽다. 더구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자나 정치꾼은 국가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통치자는 군림하고 경영자는 섬긴다. AT&T의 로버트 그린리트가 주창한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바로 진짜 경영마인드다.